“성철 스님 중도 법문, 갈등 해소 원리”

성철사상硏, 4월 24일 춘계 학술연찬회 개최

‘성철스님 불교관’ 주제로 서재영 연구원 중점 발표 비대면 연찬회로 진행 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은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불기 2565년 춘계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학술연찬회에서 서재영 연구원은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성철 스님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으로 중도의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설파한 중도사상은 불교교리나 법문에 국한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낳은 시대의 고를 치유할 처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변견(邊見)에 매달리는 중생은 지금도 여전함으로 중도사상은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부설 성철사상연구원(원장 조병활)이 4월 24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개최한 ‘불기 2565년 춘계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학술연찬회에서 서재영 연구원(성철사상연구원/성균관대)은 성철 스님의 중도사상이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퇴옹 성철 스님이 백일법문을 통해 중도사상을 설파하던 시절은 사회적, 교단적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고(苦)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는 진보와 보수, 남한과 북한, 친일과 반일, 비구와 대처 등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물론 근·현대 세계사는 양변의 인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동족상잔의 전쟁과 이념갈등으로 가혹한 고통을 겪었다”며 “편견이 생긴 이유는 자기중심의 아상에 의한 분별심과 집착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백일법문에서 현수법장의 진공사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연찬회는 ‘퇴옹 성철 스님의 불교관 연구 2’를 주제로 열렸다. 강경구 동의대 교수가 ‘성철선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시론’을 기조발제 했으며, 박태원 울산대 교수가 ‘중도(中道)의 철학적 의미’, 양순애 경북대 박사가 ‘승찬과 성철의 중도 사상 비교’, 석길암 동국대 교수가 ‘현수법장의 교판론과 퇴옹성철의 불교관 비교 연구’, 서재영 성철사상연구원 연학실장이 ‘퇴옹성철의 중도법문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행사는 종합토론과 마무리 인사로 회향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술연찬회는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발제문과 학술연찬회 영상은 홈페이지(http://www.songch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불교계, 광주불교연합회로 통합

4월 23일 광주불교연합회 · 사암련 기자회견


광주불교연합회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통합을 알리는 손을 맞잡고 있다.

2018년 분리되었던 광주지역 승가단체가 하나로 통합, 광주불교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공)는 4월 23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 개의 승가단체를 통합하여 ‘광주불교연합회’로 통일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승가단체는 2018년 11월 중소 종단에서 광주불교사암연합회를 다시 발족하면서 2개의 승가단체로 분리됐다.

이날 통합선언 기자회견에서 도성 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오늘 역대 큰스님들의 원력과 광주불교공동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광주에 실현하여, 아미타극락정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길에 섰다”고 선언했다. 또 스님은 “이제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광주불교가 더욱 활성화 되고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승가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치유 여행으로 코로나19 우울 극복

김제 모악산 일대 종교문화자원 활용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가 자리잡고 있는 전북 김제시 모악산 주변이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라북도는 4월 26일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1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치유 여행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관광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이번에 선정된 김제 치유순례는 금산면에 소재한 4개 문화재를 연계, 금산사~금산교회~수류성당~증산법종교본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평가에서 최고의 콘텐츠라는 호평을 받았다.

2억 원의 예산(국비 1억 원,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해 이르면 5월부터 종교문화해설사 교육을 통한 해설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진행자로 참여시켜 1박2일과 1일 코스의 종교문화 치유순례 프로그램을 10여 차례 추진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련사, 경찰서와 청소년 ‘힐링’ 선도

4월 23~25일 ‘힐링 템플’ 진행 선도 · 마음 수양 매월 1회 지속


청련사서 진행된 ‘힐링 인 템플’ 1기 프로그램 모습.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이번엔 지역경찰서와 공동으로 마음수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청소년 힐링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청련사는 올해 양주경찰서와 함께 매월 1회 청소년 선도 및 마음수양을 위한 ‘힐링 인 템플(약칭 히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힐링 인 템플은 경찰서가 운영해 온 선도 · 직업교육과 청련사의 마음수양 프로그램을 접목한 것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수양을 돕고 이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첫 프로그램은 4월 23~25일 지역 내 지구대와 경찰서, 청련사에서 1기 참가자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첫날 고읍지구대에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지역 순찰을 체험한 데 이어 양주경찰서에서 경찰제복 및 장구 소개, 직업교육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청련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한국전통문화 체험에 나섰다. 청련사 체험 프로그램은 타종과 보행명상, 108배 참회정진, 1년 후 나에게 편지 쓰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도심 속 한적한 사찰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이날 주지 상진 스님은 칠불통계게를 인용한 법문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과 인과의 업 등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기도 했다.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靜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 온갖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착한 일을 두루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바른 생각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스님은 “나쁜일 하지 말고 좋은일 하라는 말은 세살 먹은 아이도 알고 있지만, 팔십 노인도 그 실천은 어렵다”며 “잘못된 인과의 업을 바로 참회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스님은 “오늘 우리의 만남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며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 인연들과 맑고 향기롭고 지혜로운 만남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동길 경정은 “경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선도 · 심리프로그램과 달리, 청련사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지는 등 도움이 됐다는 소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힐링 인 템플 2기는 5월 28~30일까지 진행된다. 모집은 5월 초 각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광주 봉축탑 점등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4월 28일 5.18민주광장에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갖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광주시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봉축행사 일정을 시작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양군 불자연합회 봉축탑 점등식



청양군불자연합회가 불기 256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23일 청양고등학교 앞 회전교차로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 연등탑 점등식을 가졌다. 〈사진〉

행사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불자연합회 명예총재 현불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과 정진석 국회의원, 김돈곤 청양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예총재 현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이번 점등식을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밝은 구슬을 꺼내어 마음을 밝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코로나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